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尊制)를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전설의 무릉도원, 부천의 소사(素砂)로 밝혀져

격암유록과 성경, 소사에 정도령(이긴자)이 계신다고 예언돼



부천무릉도원소사

부천은 복숭아가 유명하여 복사골로도 불린다. 복숭아는 무릉도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부천생태공원 안에 이를 상징하는 무릉도원 조형물이 있다.

경인지방은 길지(吉地)다

도(道)를 닦는 사람들이거나 진인(眞人)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길지(吉地)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어느 곳에서 유명한 도인(道人)들이 많이 나왔거나 진인(眞人)이 있다면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길지(吉地)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격암유록은 길지(吉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平沙三里十勝地(평사삼리십승지) 즉 부평과 소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길지(吉地)라”고 예언하고 있다. “非山非野仁富之間(비산비야인부지간) 弓弓吉地傳(궁궁길지전)했지만 즉 산도 아니고 들

도 아닌 인천과 부천 사이가 이긴자 하나님께서 계시는 길지라고 전해 내려왔다(未中運)”고 예언하고 있다.

이 예언을 살펴보면 부천과 부평, 인천이 길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인지방에서도 소사(素砂)가 길지 중의 길지이다

그런데 격암유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부분에 “始終其也素砂地(시종간야소사지) 즉 하늘의 역사는 시작도 끝도 소사에서 한다”고 예언되어 있고, 도부신인 편에는 “天崩地拆素砂立(천붕지타소사립) 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깨져도 소사에서 하늘나라를 세운다”고 예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하늘나라는 지상천국과 무릉도원을 의미하므로 경인지방에서도 소사가 최고의 길지가 된다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에도 소사가 예언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이긴자가 받은 ‘흰 돌’이란 바로 소사(素砂)라는 지명을 뜻한다. 소(素)는 흰 소자이며 사(砂)는 모래 사자이다. 따라서 소사란 흰 모래를 뜻하며 모래는 돌이 부서져서 된 작은 돌이므로 소사(素砂)란 ‘흰 돌’이 된다.

또한 이긴자이신 조희성 선생께서 어릴 적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흰 돌’을 받았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바로 素砂(소사)라는 글자였다는 것이다.

승리제단은 소사하고도 역곡에 세워져 있다

현재 승리제단 본부 건물이 세워져 있는 곳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3동 175-20이다. 이곳은 율곡 선생의 비기(秘記)에 “人衆之地驛谷勝地(인중지지역곡승지)”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곡은 이긴자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역곡은 경인 전철 역으로 생긴 지명이지 예전부터 내려온 지명이 아니다. 역곡(驛谷)이란 지명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율곡 선생이 이렇게 ‘역곡이 이긴자가 계신 곳’이라고 예언하였으니 선조들의 혜안에 놀라울

따름이다.

소사에 천당을 만든다

조희성 정도령께서는 성경과 격암유록에 예언된 대로 하늘의 역사를 소사에서 마무리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이 소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 30리에 이제 궁전을 크게 다이아몬드로 짓는데 그 궁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당을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2003. 1.1 말씀).” 소사를 중심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살게 될 궁전을 짓는다는 것이다. 그곳이 바로 지상천국이다.

이상에서 보았던 예언 내용과 그대로 정도령 조희성님은 1981년 8월 18일 세상에 나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소사(素砂) 역곡(驛谷) 땅에 승리제단을 세워서 하늘의 백성을 창조해 내고 있다. 보광하신 정도령님은 찬란한 광명을 발하며 승리제단에 다시 나타나셔서 소사를 중심으로 사방 30리에 천당을 세우는 공사를 이루실 것이다. 천당 들어갈 자격지는 50퍼센트 이상 이루어진 사람들로써 다시 오신 정도령님이 발(發)하는 빛을 받아 영생하는 의인들로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

올해는 자유율법실천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강조기간이다. 자유율법을 어기면 죽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사에 임해야 한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기 위하여 구세주 하나님에게 울고 보고 매달리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

김중천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30)

“석방된 하나님이란?”

죄인 가운데 의인을 만들어 놓았다 는 웅변을 하셔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땅위의 의인이 석방된 하나님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자의 죄의 근본이 되는 '나'라는 의식을 죽여 버리고 하나님이 '내'가 될 때 비로소 석방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되어 그 하나님께서 계속 조종하여 움직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마귀 영육(靈獄)에서 석방된 하나님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이나 종생이나 전체가 마귀 옥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自我) 의식에서 벗어나야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욕심 속에 갇혀 있는 양심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지 '나'라고 하는 욕심의 영이 아닙니다.

6천 년간 마귀 옥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석방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부활하는 역사입니다. 이 땅위에 이긴자가 나타났으므로 온 인류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주희 부인회장 인터뷰



기자 : 먼저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거울 것입니다. 부인회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처음으로 든 생각은 무엇입니까?

기자 : 전임 부인회장은 여청연합회 및 본부제단 여청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로비 관리 및 디자인, 청소 등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청들과 연계되는 일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회장 : 사실 2, 3년 전에 누가 제게 부인회장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만약 부인회장을 맡으라고 하면 나는 도망가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인사발령이 나기 전 후보가 거론되었을 때에도 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현재 총재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막상 김상욱 회장이 부인회장을 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이 길은 순종의 길이라 부인회에 임조가 된다면 그 말씀에 따르기로 하였어요.

기자 : 부인회는 본부제단 식당 운영, 회원관리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에 역점을 두고 계십니까?

회장 : 부인회장이 바쁜 일이고 중책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바쁜 줄은 몰랐어요. 정성없이 시간이 가다보니 벌써 1개월이 되어가네요. 나를 따르라는 식의 부인회장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부인회장이 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감싸고 아껴주는 화목한 부인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자 : 앞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회장 : 전임 안재숙 부인회장님 이하 임원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제단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인회 임원 이하 모든 회원들께서는 부인회 일을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고 협조를 잘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영애 권사가 지역 1등상을 받았다

본부제단 2월 시상식 4지역 1월에 이어 연속 1등 수상

김상욱 신도회장은 3월 4일 본부제단 구역장회의를 열어 본부제단 6개지역 2월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지역, 구역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시상했다.

김 회장은 수상자들에게 “2월 한 달 동안 본부제단 각 신도들이 열심히 활동한 것에 대한 시상식이다. 이 상은 각 수상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으로 애쓴 결과에 대한 것이다. 구세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3월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2월 성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 1등 4지역(지역장 윤봉수, 지회장 이영애), 지역 2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이승애), 지역 3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구역 1등 45구역 신순이, 구역 2등 25구역 정은경, 구역 3등 39구역 윤봉수 개인 1등 신순이, 개인 2등 이영애, 개인 3등 강운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